**이 력 서**

**( 희망연봉 : 면접 시 협의 )( 지원부문 : 웹퍼블리셔 )**

|  |  |  |
| --- | ---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E-mail |  |
| 휴 대 폰 |  |
| 주 소 |  |

**1. 학력사항**

|  |  |  |  |
| --- | --- | --- | --- |
| **년 / 월** | **학 교 명** | **학 과** | **졸업 구분** |
|  |  |  |  |
|  |  |  |  |

**2. 포트폴리오**

|  |  |
| --- | --- |
| **구 분** | **URL** |
|  |  |
|  |  |

**3. 경력사항**

|  |  |  |  |
| --- | --- | --- | --- |
| **근 무 기 간** | **회 사 명** | **직 무** | **비 고** |
|  |  |  |  |
|  |  |  |  |

**4.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

|  |  |  |
| --- | --- | --- |
| **취 득 일** | **자 격 증 명** | **발 행 기 관**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서**

|  |
| --- |
| **자기소개** |
| **'아모르파티 Amor fati' (마인드)**  아모르파티란 단어는 처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씨의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접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과 다른 현재 IT 쪽에 발을 들였습니다. 선배나 다른 친구들은 왜 전공과 다른 직종의 직업을 하냐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전공이 맞지 않기 때문이였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결론적으론 만족스럽습니다. 아모르파티처럼 제 운명이라 생각된 분야로 온거 같기 때문이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의 직장에서도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자사홈페이지의 서브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워드프레스로 작업을 하게되었는데, 워드프레스를 그때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어디서 배운적도 없었고 새로운 PHP 구문들이 많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리저리 생각을 굴려 구글링을 통해 디자인에 적합한 테마를 찾고 그 테마의 화면마다의 PHP를 찾은뒤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 CSS 를 요리저리 디자인과 맞춰 수정해보며 저만의 방법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즐겁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 위치를 인식하며 즐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보유 역량 및 강점** |
| **'잡놈' 보단 '멀티플레이어' (능력)**    잡놈과 멀티플레이어의 차이는 바로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즉, 다수의 경험으로 여러 상황을 마주쳤을때,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직장에서는 입사부터 본 업무인 퍼블리셔외에 자사와 여러 프로젝트의 메인과 서브디자인,모바일 디자인과 편집디자인의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기 어플리케이션 이나 웹페이지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래밍적 프로세스의 경험, 협업능력을 익혔습니다.  이처럼 멀티플레이어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타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퀄리티나 비용감산 면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보통 웹에서의 프로젝트는 기획 -> 디자이너 -> 퍼블리셔-> 개발자 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의 업무자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퍼블리셔의 위치였지만 그누보드, cafe24, 워드프레스의 솔루션을 사용해 최종적으로 납품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도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무주산골영화제,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외에도 여러업체의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
| **입사 후 포부** |
| **'OO회사 아무개'**  퍼블리셔로서 HTML5, CSS3, JQUERY, 웹접근성, 반응형 웹은 필수가 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유행에 따른 언어등이나 스타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퍼블리셔지만, 웹쪽에서는 만능이 되고싶고 새로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유지하며 꾸준히 발전할 것이며 아모르파티의 정신으로 멀티플레이어로서 끝까지 제일을 꿋꿋이 성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